Shin Ji-yeon. 1999. A Study on the Text Construction of Current Spoken Korean. *Textlinguistics* 7. It is said that spoken texts have free and coarse characteristics compare to written texts. It is due to the fact that 'deepening' and 'progressing' the spoken text happens at will spontaneously, because the producer of the text could not have enough time to make a careful and coherent plan in advance while he is constructing the text.
1. 서론

우리는 보통 '누구 누구는 뭐를 잘 한다' 혹은 'כתוב 잘 쓰다'라는 표현을 한다. 이때 말을 잘 하고 글을 잘 쓰는 것이 비단 단어의 선택이나 문장의 구성 차원만을 열두에 둔 표현이 아니라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우리는 그러한 표현을 여러 문장들을 통한해서 하나의 사건이나 생각 등을 표현하는 능력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텍스트 언어학은 바로 인간의 이러한 언어 능력에 대해 질문하고 탐구하는 것이다1). 곧, 어떤 특성들이 보다 더 조리있는 발화가 되게 하는가, 혹은 반대로 어떤 문제들 때문에 일련의 문장 연쇄들이 조리없는 발화들로 간주되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텍스트 언어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의 조리(條理)'의 문제가 바로 텍스트 언어학의 문제의 핵심인 '통일성(coherence)'이다.


문어에 비해 흔한 자유분방한 보이는 구어의 텍스트적 특성을 밝히는 것은 간단치 않은 작업이다. 본고는 결로 보기에 무심시해 보이는 구어 텍스트의 형성상의 특질을 알아보는 데 관심이 있다. 먼저 예비 단계로 문어와 구어의 텍스트성 어떤 점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구어

1) 유럽 중심의 텍스트언어학(text linguistics)과 미국 중심의 의화 문법(discourse analysis)은 그 연구 대상을 각기 '텍스트와 의화로 달리 부르지만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어느 쪽이어도 무방하지만 여기에서는 '텍스트'로 통일한다.